

北 韓 開放 못한다 體 制 붕괴 우려

舊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는 대전환기에 타스통신사 平壤주재특파원(87~91)으로 있었던 現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 서울특파원(92~) 이완 자하르첸코記者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오늘의 북한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섰다 나서지 못하는 進退維谷에 빠져 있음을 말해 주었다. <편집자>

—서울특파원으로 오기 전까지 우리 韓國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본래 저는 모스크바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南北韓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연이어 치를 만큼 「경계가 발전한 나라」라는 인상을 품고 있었다. 당시 이데올로기적으로 舊소련과 북한이 동맹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모스크바측이 서울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게 된다는 한국의 經濟力이 결정적 작용을 했음에 틀림 없다』

—기자의 눈으로 본 北韓의 경제사정은 과연 어땠는지 알고 싶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도 北韓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 86년 이후 북한당국이 자신의 경제지표를 공표하지 않고 있어 남·북한 경제를 수치상으로 비교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平壤만 조금 벗어나도 그들의 경제가 南韓에 비해 엄청

그런데 이 취재여행이란게 당국의 허가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만을 다녔을뿐 주민들과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여름철에 元山 南浦등으로 휴가를 가기도 했지만, 일반인이라곤 구경조차 하지 못한채 정말로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겼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부러움 없어라!」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모습을 확인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北韓의 보도나 남북회담때 우리기자들이 겪은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金日成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적 구호와 실제 생활에

그들 당국의 공식발표말고는 送稿거리가 별로 없었다.

내가 쓴 기사내용과 관련해 北韓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언젠가 평양 시내에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있었다.이때 시민들이 다수 동원돼 너가래로 눈을 치우는 광경을 기사화해서 사진과 함께 모스크바로 보냈는데, 곧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다. 이유인즉, 제설차로 눈을 치우는 모스크바의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지는 평양의 실상이 그대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그들의 경직된 사고를 보여 주는 한 예다

—90년대 들어 국제적인 핫이슈가 돼버린 北韓의 핵개발

—최근 우리 안팎으로는 「제2의 韓國戰」 시나리오가 무수히 나돌고 있다.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守勢에 몰린 北韓이 최후의 一擊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크게 보아 北韓은 金日成유일체제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金부자를 정점으로 한 권력집단이 형성돼 있다. 이들은 자살행위임이 뻔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소수권력층에 의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北韓내부에 金日成·金正日부자에 반대하는 반체제세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관해 이는 바가 있다.

『내 경험으로는 北韓체제의 속성상 그러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있다고 해도 바깥 세계의 움직임에 비교적 밝은 권력층부내의 일부 불만세력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北韓이 대외개방을 결정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될 것 같은가.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기껏해야 경제분야만이 개방될 것이고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폐쇄정책은 여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체제의 전면적 개방은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에 대해 눈을 뜨도록 해줄 것이며, 그 결과 체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커져 견줄 수 없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북한 당국자

인터뷰



이완 자하르첸코
<러시아 이타르·타스通信 서울특파원>

「主體」보다 의식주해결 급급

가는곳 마다 안내원... 공식발표만 "취재"

나게 뒤떨어져 있음을 금방 알게 된다. 평양에서 지방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화물차등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인적마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공장의 굴뚝마저 연기를 내뿜지 않아 뭔가 정체돼 있는듯 한 느낌을 주었다. 지난 2월 訪北한 美 UPI통신기자가 북한은 「걸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묘사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平壤에 특파원으로 주재하면서 북한 곳곳을 가보았을텐데 그곳에서 일반주민들과도 접촉한 적은 있었는지.

『말하자면 「모범 도시」인 평양특별시외에 많은 곳들을 여행했다.

는 다른 점이 많다. 주민들이 겉으로는 「위대한 수령」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사실 먹고 사는 일에 바빴 따름이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사상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하루하루를 사는데 바쁜 인간의 마음속까지 지배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중주국」인 蘇聯 관영통신의 특파원으로서 취재상의 특혜를 받았을 것 아닌가.

『이렇다할 특혜같은건 없었다. 고위인사와의 면담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일반 주민들은 사회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도 平壤시민에 국한됐다. 따라서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는가.

『나로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다만 北韓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들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요컨대 그들의 「核개발」은 대외정책의 전략적 카드로 고안된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그 이면에는 核카드를 이용해 美國등과 협상을 벌이며 체제 개방을 되도록 늦추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그런데 이제 북한측이 국제사찰을 받아들이고 남북간에 특사를 교환기로 한 이상, 이 카드도 金泳三대통령의 말대로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들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統一을 앞두고 우리 韓國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韓半島는 과거 東西獨이나 루마니아하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만일 북한체제가 급작스럽게 무너져 韓國정부가 흡수통일의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면 분단에 못지 않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북한경제를 도와주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경제력의 차이가 클수록 통일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 金光伯차장>